

경기 모듈부품 3사 상견례 미래 향한 첫발함께

첫 만남, 공통 3 메시지 전달

지난 14일(목) 현대위아안산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화성, 평택지회의 2020년 교섭 상견례에서 모두 중앙·집단교섭 참가 요구 및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를 향한 투쟁의 첫발을 함께 내디뎠다.

5.14(목) 10시 현대위아안산, 15일(금) 13시 현대모비스화성, 15시 현대모비스평택 상견례가 열렸다.

3사 사용자측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자동차산업 위기 속에 고용안정 중심 상호 양보로 위기를 극복하자. 생산과 품질 안정을 통해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강한 노사관계를 대외적으로 입증해서,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흐름 속 미래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첫인사를 했다.

노동조합 교섭대표를 맡은 지부 윤옥동 수석은 “신생 안양모비스를 비롯 경기지역 4사 교섭을 총괄하게 됐다. 지부장의 각별한 주문이 있었다. 올해 교섭 공동보조 맞추며 갈 것”이라며 교섭을 열었다. 상견례에서 공통으로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①코로나19 빌미로 한 완성사 논의 모듈부품사로 전이되면 용납불가 ②중앙·집단교섭 참가 없이 올해 교섭 안 끝낸다 ③교섭구조 답 없으면 미래 위한 파업 간다. 이 세 가지다. 고용안정은 기본이라 논외다.

1 완성사 프레임 용납불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타격은 인류 초유의 사태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욱 번질 것이다. 교섭 시작도 전에 현대기아 얘기로 언론이 군불을 켜고 있다. 임금동결, 임원 임금반납, 인소싱 등 얘기가 공식 석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모듈부품사 교섭에서 운운하면 용납 못 한다. 위기 극복 노력에 노동조합도 열린 마음으로 상의하고 합심해 극복해 갈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코로나19, 완성사 논의를 빌미로 공격한다면 조합원에 좋은 영향 안 미칠 것이다. 모듈부품사의 독자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자.”

2 무전략 각자교섭 그만, 집단교섭 참가

“화성을 시작으로 4년째 전국에서 각자 교섭 중이다. 이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섭은 올해까지만 하자.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각자도생도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 모듈부품사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전국에 노조가 생겨 모비스-위아-그룹도 교섭형태 고민이 있을텐데 아직 사측에서 전혀 방안을 제안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금속노조의 원칙적 설계인 중앙·집단교섭 참가를 제안한다. 모든 요구의 핵심이다. 이 문제 진전 없이 교섭 끝날 가능성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

3 미래 위한 파업

“올 해 임금 얼마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일 없을 것이다. 교섭구조와 관련 계속 소모적 각자 교섭을 하겠다면 우리는 휴가 후 미래를 위한 파업을 준비하겠다. 각개약진하는 노사관계에 경쟁력도 미래도 없다. 모듈부품사 사용자들도 모여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모비스-위아 한몸

위아안산에서는 특히 “노동조합은 위아와 모비스 통으로 본다. 기

업규모나 지위를 갖고 구분하는데, 모비스나 위아나 모듈부품사는 현대기아차 세계경쟁력의 핵심인 직서열생산(JIS) 방식을 위해 만든 공장으로 목적이 같은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집단교섭 참가를 통해 공동보조를 맞춰갈 것을 제안했다.

진지한 방안 기대

3방향에 대해 모비스평택 사용자는 “교섭 첫날인데 너무 솔직하시다”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노조는 “올해는 불가피하다. 첫만남에 있는 그대로 전략을 밝혀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노사 얼굴 맞대는 이 자리에서는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차분하게 교섭에 임하겠다. 입장이 다를지라도 올해 교섭을 마치며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의 진심 어린 고민에 대해 사측도 진지하게 고민해 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미래 여는 2020

2017년 모비스화성지회 설립 후 전국 11개 모듈부품사에 노동조합이 생겨 현재 14개 지회가 있다. 2020년 3월 모비스안양지회 설립을 끝으로 경기지역 모듈부품사는 다 경기지부 식구가 됐다.

매년 각사 개별교섭을 하지만, 그룹의 판단과 모듈부품사 노동조합 공동의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같은 방향과 내용의 결론을 도출해왔다. 이런 비효율적 교섭형태는 지속 불가능하며,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지역 모듈부품사 모두에 중앙·집단교섭 참가를 요구했다. 기초협약 논의 중인 신생 모비스안양지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불확실성의 세계 노동조합의 미래에너지 키운다

경기지부 전체 사업장은 올해 교섭에서 중앙교섭·집단교섭 참가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중앙교섭·집단교섭은 금속노조 출범 때부터 설계한 산별노조의 원칙적 교섭형태다.

모든 사업장 노사가 함께 교섭하고 함께 투쟁하며 공동전선을 갖추고 내부의 격차를 축소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에게도 금속산업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2020년 현재 중앙교섭에는 65개사가, 경기지역 집단교섭에는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한국 산업 구조의 특성상 완성차 노사의 중앙·집단교섭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모베이스경기지회가 중앙·집단교섭 합의를 바탕으로 월할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을 막고, 유베이스수원지회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경기지부 사업장들이 집단교섭 사업장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뒷배가 되어 조직을 지켜나가는 등 격차축소 상호보호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가고 있다.

2020년 경기지부는 집단교섭 공동요구를 통해 불확실한 정세 속 공동의 태세를 갖추고 상호교류·엄호·도전하며 지부의 기둥이 되는 집단교섭군을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핵심 미래에너지라 보고 함께 도전한다.

2020 교섭위원 각오

인류역사 상 초유의 코로나발 위기 속 모듈부품사 미래를 열어가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교섭에 임하는 3사 교섭위원.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울 이들의 각별한 각오를 실습니다.

시작부터 자력현장, DNA는 진화한다 현대위아안산지회

윤호상 지회장
경기지부의 기풍대로
협력-몰빵의 정신으로 집단교섭 쟁취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김범겸 수석부지회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원 부지회장
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병구 부지회장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호 대의원
처음 하는 교섭위원,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이현 사무장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민중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야나두! 포비스토리는 계속된다 현대모비스평택지회

양태인 지회장
20투쟁 시작이 밝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

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더 가깝게 단결하여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항상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나 하나 썸이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닌 ‘우리의 뜻, 나의 뜻은 이렇다’는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함께 갑시다! 투쟁!!

육용국 수석부지회장
매년 안 힘들다고 한 적 있었나? 노동의 진정한 부가가치 재분배를 고민해야 한다. 사내유보금 이럴 때 투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길을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김주형 부지회장
노동자의 축제가 열렸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위기도 그 무엇도 아닌 현장의 주인인 우리입니다. 원활한 투쟁을 위해 소통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문제윤 조직부장
그동안 방패막이한 타 사업장은 잊어라. 진전없는 교섭이 지속될 시에는 교섭의 방향성도 바꿀 것이다.

이형석 사무장
이제 3년차 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 교섭에서 많이 느꼈고 이번엔 털건 털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눈 길에 첫발, 새로운 초심을 향하여 현대모비스화성지회

안재연 지회장
위기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태도로 올해 교섭 하자.

나우진 부지회장
즐겁게! 끝까지! 자신있게!
이경호 교육선전부장
조합원의 마음모아 함께하는
2020 임단협 투쟁!
재난 극복에 앞장서는 노동조합!

정성환 복지부장
여유를 가지고! 함께 투쟁합시다!

홍창선 문화체육부장
세상이 변했다. 교섭도 변하자.
하나로 빠르게 가자!

박인화 조직부장
위기일때 노조답게
함께살자 지부집단교섭
함께살자 노동조합조직

박정환 노동안전부장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최현록 사무장
모두 책임감을 갖고 존중하는 교섭을 하자!



막동이 잘 있나? 조직-교섭-변화 착착 현대모비스안양지회

3.28(토) 코로나를 뚫은 첫 노조로 사내 설립총회를 하며 경기 모듈부품사 막내로 등장한 현대모비스안양지회.

지난 2달동안 상집-대의원 조직체계를 갖추고, 업체-층-조별 벽을 넘어 갈라졌던 관계를 연결하며 할 일 착착 하고 있다.

4.29(수) 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까지 교섭했

다.(사진 위) 6월 초 기초협약 체결을 예상하며 조합원 간담회를 거쳐 요구안을 만드는 중이다.

4.27(월) 휴업 중에도 열린 전조합원 교육에 압도적 참가로 조직력을 보여줬다.(사진 아래)

이미 전국 모듈부품사가 일궈온 단체협약의 바탕이 있다. 첫 단협에서 노동조합의 기틀 탄탄히 다지고 현장을 스스로 변화시켜가는 자력현장 DNA를 아로새기고자 한다.